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

본문:사도행전 14:1-18)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자라

여기서 나면서 걷지 못한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다음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언제나 바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13:3,5,7,44,46,48-49), 구원의 말씀(13:26), 은혜의 말씀(14:3), 좋은 소식(13:32;14:7,15,21)을 말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사건과 비슷하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3:12)고** 하면서 복음을 길게 전했다.

본문에서도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그에게 제사하고자 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본문에서 바울은 짧지만 매우 의미있는 설교를 한 것 같다. 그 설교의 출발점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 같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15b)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가 창조한 피조물을 아끼고 잘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창조 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된다. 우상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16), 그 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증거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일에 의해 바울의 청중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하셨다. 그분은 하늘로서 비를 땅에 내리셔서 철을 따라 추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위해 먹을 것을 내시며,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17). 그는 군중이 이러한 장엄한 전망에 압도 되겠금 하여,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겨우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기독교를 접할 때 창세기를 공부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비록 사단의 장난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복되게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배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양대학교에서 13년반동안 겸임교수로서 창세기를 강의 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 왔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15).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부를 가져다 주고, 명예와 권세, 건강, 그리고 자기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

라고 하였다(골로새서 3:5). 탐심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비록 그 우상이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켜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탐심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게 한다. 우리의 참 된 구원은 끝없는 욕심의 시궁창에서 빠져 나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신앙 생활하면서 참 행복을 맛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이란 My Way를 버리고 God's Way 택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참 하나님나라의 특성인 온전한 연합과 조화(Perfect unity and Harmony)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15b)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한다.